



빛이 있는 도시 (서울의 야경을 아름답게)

진 희 선(서울시 주택국 도시경관담당 사무관)

1. 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IMF 구제금융 지원체제라는 국가 초유의 비상 경제 하에서 기업파산과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이다. 그 구원은 구체적이면서도 가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물질적이지 아니면서도 우리의 가슴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희망의 빛이 필요한 것이다.

성서에 보면 우주에서 가장 먼저 탄생하는 것이 빛임을 알 수 있다. “하느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다”고 했다. 그 빛은 우주의 탄생의 시발이며 생명의 기원이고 우주 앞날에 대한 밝은 희망이다. 또한 빛은 무한한 우주의 총괄 주재자인 하나님 자신을 뜻하기도 한다. 우주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빛은 에너지의 실체이며 우주탄생의 기원이다. 이렇듯 빛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빛이란 물리적 실체요소 이상의 의미인 희망과 구원, 그리고 생명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주 탄생 그 태고적 이후에 빛은 주간에 있어서는 햇빛으로, 밤에는 달빛과 별빛으로 구분되는 자연환경의 일부였다. 그러다가 50만년 전에 북경인이 불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불이 빛의 요소에 하나를 더하였다. 그 이후 1879년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

명하고 전기에너지가 보급됨에 따라 빛은 조명이라는 요소로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진 이 조명은 인간의 노동시간을 연장시켜주고 낮과 밤이라는 자연환경을 극복하게 함으로서 인간에게 많은 편리를 가져다주어 현대사회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가 되었다. 밤에 전기조명이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제 밤에도 낮 못지 않은 밝은 조명불빛 아래서 노동을 할 수 있고 여가와 오락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조명은 이제 단순히 낮 시간의 연장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광고물, 예술장식품에까지 쓰이기에 이르렀으며 이제는 도시전반에 야경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데 쓰이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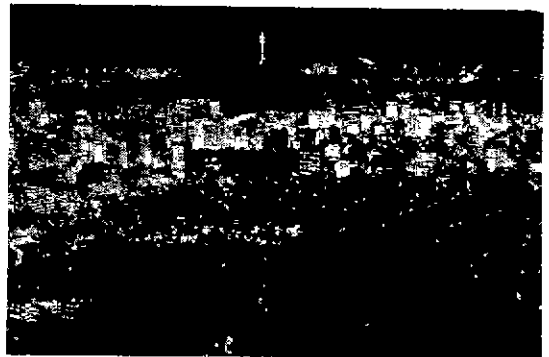


사진 1 서울시건축상 이진경관부문 공심 당선작, 담배인삼공사 사옥인 코스모타워의 경관조명(아름다운시각적인 불거리를 제공하고 야간도시환경개선에 기여도가 큰 모범적인 사례이며 경관조명 표현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금상으로 선정됨)

2. 경관조명의 사례들

2.1 경관조명의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빛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 옛날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시골지역에서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활하던 사회에서는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생활 패턴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인공적인 빛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도시화가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지역 안에서 고밀도로 정착지를 구성하여 생활하는 도시에 있어서 밤의 빛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도시의 가로에 최초로 불을 밝히기 시작한 것은 1600년경 프랑스 루이 14세 시대의 파리에서 부터이다.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밤 9시 이후에 모든 길가의 집 창문에 밤새도록 등을 켜두도록 한 것인데 이후 파리가 빛의 도시로서 유럽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것은 도시의 경관을 위한 조명이 기보다는 안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당시에만 해도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하면서부터 도시경관조명의 본격적인 출발을 예고하게 된다.

2.2 프랑스의 리용시

세계적으로 도시의 경관조명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당연히 프랑스의 리용시이다. 리용시는 파리의 남쪽으로 40[km] 떨어진 인구 40여만의 도시로 로마인 이야기(시오노 나나미 저)에도 나오듯이 로마 시대에 도시가 형성되어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갖춘 도시이다. 그럼에도 그간 파리의 위성도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 이에 1989년 당선된 미셀나르 시장이 “아름다운 밤의 도시”를 시장 공약사항으로 내세워 매년 시예산의 1.5%를 투자, 130여 개의 건축물, 교량, 공원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다. 이 계획은 시미셸 노이어의 지휘하에 1994년 계획의 대부분이 완성되어 리용시는 아름다운 야경의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매년 10월 8일에 경관조명 페스티벌의 축제를 열어 세계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그 결과 리용은 파리의 위성도시에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였고 경제활성화의 주요 전략으로 도시의 야간경관을 삼고있다. 리용시의 독특한 야경전략은 건물 소유주가 시와 협상하여 조명디자인을 시작하고 설치한 후, 시에 설치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유지관리의 책임을 떠맡아 추가되는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는 문서에 의해 공식화된다.

2.3 일본의 요코하마

일본의 야경은 1970년 말에 시작하여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도시재개발, 지역경제비라는 추세 속에서 야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연출하게 되었다. 1986년부터 밤의 도시경관 연출을 시작한 요코하마는 “민·관의 야경연출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도시환경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관조명의 시설비 및 전기료의 80[%]를 공공단체나 전력회사에서 지원한다.

2.3 일본의 히메지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국보급인 히메지성을 중심으로 경관조명을 계획한 히메지시는 경관조명계획에 있어서 몇 가지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 시 전역에 대한 빛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도심부와 교외부를 분류하여 지역적 구분을 분명히 하고 지역의 특성을 창출하는 조명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지역의 행사와 연계시켜 지역의 활기를 넘치게 하고 있다.

경관조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 전역이 무턱대고 조명으로 밝혀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두워야 할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생태계의 악영향, 아름다운 밤하늘(달빛, 별빛 등의 자연광)에 빛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야간경관조명은 왜 중요한가?

3.1 도시의 경쟁력 확보

지금 지구촌은 무한경쟁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세계의 무역환경을 이끌어 왔던

GATT체제는 이제 WTO라는 무한경쟁체제로 바뀌면서 국가간, 이데올로기간의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오직 국가의 경쟁능력에 의해서 무역이 형성되고 시장이 이루어지는 데 변혁기를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적자생존의 법칙이 중요한 경쟁의 척도가 되어 버린 것이다.

교통과 컴퓨터의 발전, 통신의 발달에 의해 이루지는 세계화가 현대 사회의 방향의 한 축이라면, 지방화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시민의 구체적인 서비스 제고라는 공공의 본래 목적이 강조되면서 또 다른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가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도시간의 경쟁력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도시간의 경쟁력은 국경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세계 경제 속에서 국제경제의 거점으로서, 지형학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제도시들이 부상하면서 무역과 금융,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들이 입지 하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인간의 삶의 질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지형학적 위치 못지 않게 도시환경의 쾌적함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등장하게 된다. 도시의 경쟁력 척도는 실제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도시가 얼마만큼 살기 편안한 요소를 갖추었느냐?—즉, 도시의 쾌적함(Amenity), 안전성, 공해의 적음, 친근감, 도시경관의 아름다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시의 경관적 요소가 도시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도시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역사적인 유산들을 활용하여 도시의 미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 연출은 이러한 도시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3.2 국제적 도시이미지 제고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부상한 것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 말 지정학적 입지 여건하에서 열강들의 관심이 한반도에 미치기 시작하면서 부터 라고 할 수 있다. IMF라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서울은 지난 30년간의 세계에서 유래가 찾아보기 힘들만큼 단기간 내에 고

도의 압축성장을 이룩한 도시로 국제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미래에서도 서울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이렇게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서울의 도시 이미지는 새롭게 단장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서울의 도시모습이 성장 일변도 속에서 도시구조의 확장 과 개발에 힘써왔다면 이제는 도시의 모습을 바꾸어 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서울의 도시모습이 전체로서 하나의 아름답고 독창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때 서울이 국제적인 도시로서 그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다. 경관 조명의 활성화로 서울의 야간경관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이러한 서울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

3.3 도시환경 질의 개선

지난 한 세기가 굶주림과 험벗음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요건인 의식주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앞으로 21세기는 인간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데 노력이 집중될 것이다. 즉, 양적인 욕구에서 질적인 전환을 추구하게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인간이 살고 있는 터전인 도시의 환경을 인간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는 파밀개발을 억제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 구조를 인간중심으로 개혁해 나가는 등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겠지만 도시경관의 모습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계획적인 경관조명의 연출로 서울의 야경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은 도시의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 갈 것이다.

3.4 도시의 정체성(Identity)

서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서울은 600년의 고도이면서도 현대적인 도시이다. 따라서 역사의 정취가 풍기는 많은 문화재를 갖고있는 도시이면서도, 또한 산업사회의 산물인 고층빌딩과 위락, 백화점 등 많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입지하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서울의 서울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

다. 서울은 로마와 파리와 같이 역사 문화재가 어울려 도시 전체가 하나의 역사현장과 같은 느낌이 드는 도시도 아니다.

뉴욕이나 시카고와 같은 현대적인 도시에 군데군데 역사의 유물들이 산재해 있는, 즉 과거와 현재가 혼재 되어 있는 도시가 서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서울이 개발, 성장시대를 거치면서 들어선 현대적인 건축물들도 서울이라는 도시구조에 남기고 있는 역사 속에 생성된 것이라고 한다면 서울의 도시 모습이 정체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혼재 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서울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찾아나가고 그것을 특성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야경의 연출은 이러한 정체성을 찾아가고 가꾸어 가는데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4. 경관조명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제들

4.1 도시의 경관특성

도시의 경관은 도시의 전체 내지 일정지역이 하나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경관조명을 연출하는대는 그 도시의 구조형태와 그 구조형태가 만들어 내는 경관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왜냐하면 야간경관조명은 마치 사람의 얼굴에 화장하는 것과 같아서 도시기본구조 골격이라는 바탕 위에 무슨 화장품을 사용하여 어떤 화장기술로 어떻게 채색을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관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은 남산, 북한산 등의 산경과 한강과 지천으로 이루어지는 수경이 수려하게 어우러져 있는 풍부한 자연자원을 갖추고 있는 도시이다. 둘째, 서울은 고궁과 종묘, 기념탑 등 역사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고도이다. 셋째, 서울은 고층 건축물, 백화점, 업무시설 등 현대적인 시설들이 건립되어 있는 도시이다.

4.2 경관조명의 목표

아름다운 야경조명을 위해서는 경관조명의 목표가 중요하다. 경관조명의 목표가 거시적인 틀에서는 역

동적인 야간경관의 창출이지만, 세부적인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아름다운 특성을 살리고 그 위에 지역여건에 어울리는 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막연히 많은 건축물에 경관조명의 수를 늘려 가는 것만으로는 아름다운 야경을 연출할 수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불필요하거나 시각적 공해를 일으키는 개별 시설물의 홍보 효과 만을 고려한 광고물과 같은 조명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4.3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축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듯이 경관조명의 시행에 있어서도 역시 중요하다. 경관조명의 시행경험이 오래된 프랑스 리옹이나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요코하마의 경우는 “요코하마 야경연출 추진협의회”와 같은 협의회 조직을 갖추고 도시야경연출의 기획 운영, 각종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연락, 야경연출 사업의 이벤트 개최 등 야경연출의 총체적인 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또 그 협의회의 행정지원을 위해 도시계획국 도시디자인실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서울에 있어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 구분을 한다면, 시 차원에서는 서울 전역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야경을 추진해갈 수 있는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조명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발굴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주요임무라 하겠다. 구청차원에서는 구별 상징가로나 랜드마크적인 지역에 대한 세부 야경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구에서 직접하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는 민간건축주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관조명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은 자기 건물의 홍보성이나 인지성만을 의식한 광고물 위주의 조명이 아닌 지역여건과 주위와의 조화를 이루는 야경연출이 되도록 노력해주어야 한다.

또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경관조명의 추진의 연결고리를 구축하고 이 협의체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분담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이러한 시행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피드백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현재 서울의 밤은 어떤가?

서울은 남산과 한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600년의 고도로서의 전통성 있는 역사문화재 등이 어우러져 있는 세계에서 드문 천혜의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러나 밤에는 어두워 정체된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야간에 비추어지는 조명이 대부분 가로등과 자동차 헤드라이트, 상업간판에 의존하는 보행과 교통의 안전, 상업적 홍보에 치우쳐져 있어 도시전체의 야경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승례문, 동대문 등 문화재와 세종문화회관, 성수대교 등 공공시설물, 그리고 포스코, 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 등 민간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경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검토되지 않고 다 지어진 다음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 조명기구가 외부로 노출되어 주간에는 오히려 미관을 해치거나 야간경관조명 시에도 조명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996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시작된 경관조명은 '98년을 정점으로 IMF의 관리체제로 들어서면서 "절약! 절약!"이란 구호 속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관조명까지도 소등하는 등 많이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비되는 전기료를 보면 성수대교는 1일 8시간 경관조명시 월 전기료 80만원 정도이며, 세종문화회관은 1일 4시간 경관조명시 추가 전기료 비용은 월 14만원으로, 경관조명이 가져다주는 도시의 아름다운 야경 연출 효과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MF시대의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금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상당부분이 소등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IMF관리체제하의 우울한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불어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은 빛이다. 인간이 노동하고 사람을 만나고 휴식을 취하며 24시간을 생활하는 도시공간이 주는 이미지는 인간의 정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경제적으로 우울한 시대에 일상생활을 보내는 도시의 모습이 더욱 우울한 느낌을 준다면 그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은 더욱 우울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빛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야간경관조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영국은 1970년대에 오일쇼크라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템즈강 주변의 야경을 개선하기 위한 "Light Up Thames 계획"을 수립하여 서쪽의 알버트 다리에서 동쪽의 타워 다리까지 약 8(km)에 이르는 강변을 따라 교량과 인근 전통건축물에 대하여 조명시설을 설치하였다. 이 계획에 의해 1975년까지 런던탑, 세관, 국회 의사당, 왕궁, 왕립병원 등 100여 개소에 경관조명을 성공적으로 설치 완료하였다. 침체된 경기 속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런던이 아름다운 야경의 도시로 세계에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시민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전례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야간경관조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도시의 야경은 개개의 시설물의 조명도 아름다움을 표출하도록 해야하나 서울시 전체로서의 조화를 이루어 서울 전체가 하나의 야경으로서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간의 경관조명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도시 전체로서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개개 시설물의 조명이 각자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거나 자기건축물의 인지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을 너무 부각되게 한다면, 상업용 광고에서 보듯이 오히려 공공에 피해만 가증될 수 있다.

아직은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되나 외부경관조명이 너무 많거나 조도가 높을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의 불편을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무분별한 야간경관조명을 방지하기 위해 경관조명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위치를 미리

선정하여주고 선정되지 않는 건축물은 경관조명을 규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앞으로는 무제한 경관조명을 허용할 것이 아니라 랜드마크가 되는 주요 지점별, 지역별, 노선별로 미리 계획하고 선정된 지역 안에서 경관조명이 연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서울의 밤을 아름답게

6.1 서울야경 추진 전략

서울시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도시의 경관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경관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서울시 조직 내에 도시경관과의 조직이 신설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이번 서울시 구조조정에서 도시경관과 조직이 다시 사라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간 70년대와 80년대의 성장과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크고 높게라는 개발의 논리에서 한발 물러서 도시의 경관을 생각하면서 개발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도시를 아름답게 다듬고 가꾸어 가려는 의지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러한 도시경관에 대한 관심은 주로 주간 경관에 대한 것이었으며 밤의 경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도시의 경관이 서울시민이나 방문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주간 못지 않게 밤의 경관이 주는 도시의 이미지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서울의 야간경관을 아름답고 생동감 있게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야간경관이 이제 출발 단계임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첫째,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것은 금물이며 작은 것이라도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해나가는 것이다. 도시의 야경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있어서 너무 큰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적은 예산으로도 경관조명의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시설물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그 파급효과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설물의 소유자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관조명은 자금을 투자하여 즉시적인 개발 이익을 거두는 개발논리와 달리 장기간의 세월에 걸쳐 평가를 받으면서 그 효과

를 얻어 가는 도시경관의 논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시설물 소유자의 호응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요즘 건축주의 성향은 건축비용이 다소 증가하더라도 건물의 디자인이 독창적이어서 일반인들에게 인지성을 높이고 주위와도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지역경관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므로 건축물 전체공사비와 비교하면 소소한 금액인 경관조명비를 투자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례들을 건축주에게 보여주면서 외부경관조명 설치를 유도 권장한다면 건축주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몇 개의 건축물이나 조형물이 경관조명을 설치했다고 해서 도시야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나 적극 지지하는 마음이 어느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거리를 경관조명이 설치된 시범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시민의 반응을 살피고 그 관심도를 평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여 경관조명이 시민에게 사랑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범특화된 거리가 시민들의 지지 속에 여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도시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야경으로 가꾸어지는 것이다.

6.2 서울의 야경개선계획

이러한 경관조명의 추진기초하에 금번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야경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기본추진 방향은 공공시설물에 우선 경관조명을 시범 설치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민간건축주에게도 자극을 주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경관조명이 어느 정도 확산된 뒤에는 야간 경관조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경관조명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전략이다. 그 개선방안을 성안한 필자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시범설치

공공시설물의 경관조명 시범설치는 역사성이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하되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의 가시권이 양호하고 경관조명효과가 큰 시설물을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은 수도로서 600년이 넘는 고도이다. 세계적으로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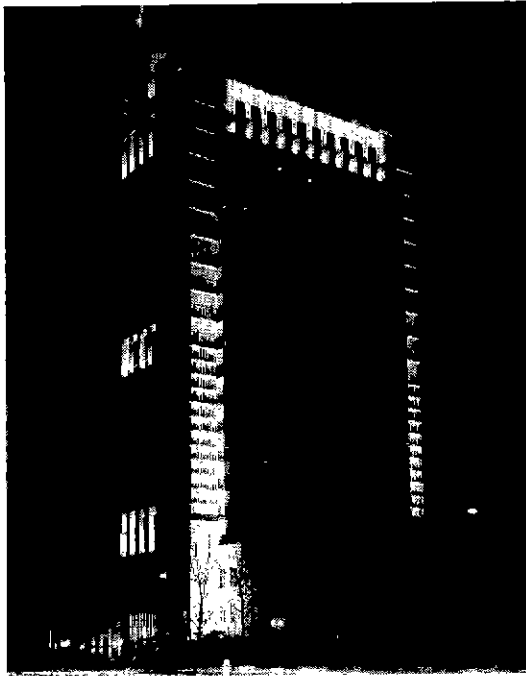


사진 2. 서울의 야경(도심을 중심으로 야경이 형성되어 있지만 도시 전체적으로는 어둡고 특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년 이상 수도로서 역할을 해온 도시가 10개 도시 안 밖이라고 할 때 서울의 역사적 가치는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서울의 고도로서의 가치는 600년 동안 쌓아온 역사문화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며 이 문화재에 경관조명을 비추므로써 서울시민에게는 서울의 자긍심을 주고 서울의 방문객에게는 서울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문화재 중에서도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운현궁, 창의문, 동십자각, 광희문, 혜화문, 홍지문, 흥화문, 남산한옥마을, 서울역사, 명동성당, 원구단 등이다.

많은 사람들의 가시권이 양호하고 경관조명효과가 큰 시설물로서는 교량과 공공건축물 및 조형물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서울은 남산, 북한산 등의 산경과 더불어 한강이라는 아름다운 수경을 갖추고 있는 도시이다. 한강은 강폭이 최소 600[m]에서 1,200[m]로 세계 어느 도시하천과 비교해도 큰 규모이다. 한강에는 1937년에 최초로 건설된 한강대교를 비롯하여 21개의 교량과 10개의 철교가 있다. 이 교량 중에서 사장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 올림픽 대교 등 조

형미 있는 교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둠속과 빛 교량, 그리고 물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한강의 수변 분위기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한강의 중지도, 선유도 등 수변공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한강의 야경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물의 경우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서울을 상징할 만한 건축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이 현재 설계 중이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경관조명 계획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2002년 월드컵경기 시에 경기장의 야간 조형미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객에게도 잊을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간부문의 참여와 시민 관심 끌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경관조명상을 신설하여 우수한 경관조명을 설치한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상장과 상금을 시상하는 것이다. 서울건축상은 1982년에 신설하여 현재 17년간을 운영하여왔다. 그간 건축상은 우수한 서울의 건축물을 많이 발굴하였으며 서울의 도시경관을 제고하기 위해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하겠다. 그렇지만 건축상이 건축물의 조형미와 디자인 등의 우수성을 평가하면서 주간에 보여지는 모습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야간경관까지 고려하면서 평가하지는 않았다. 이번에 건축경관조명상을 신설한 것은 경관조명의 분위기를 고양시키자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더불어 건축물의 조형성이나 디자인의 독창성이 주·야간 공히 같이 우수하게 디자인 되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설물의 경관조명은 개개 시설물의 인지성을 높이는 선전효과도 있지만 조명의 특성상 좋은 나쁜 공공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따라서 공공을 위해 아름답게 계획된 경관조명은 공공차원에서 세제 및 전기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익자금인 세제나 전기료 감면은 시민입장에서 경관조명이 정말로 시민이 일정부담을 지면서까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

대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리용시나 일본의 요코하마시에서 세제나 전기료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나 전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이 도시들은 야간경관조명이 도시의 볼거리를 제공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적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경기 활성화를 일으키는 등 공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시민의 부담이 되는 세제나 전기료 감면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문화수준은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의 미관을 위해 이 불편도 감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의 도시계획이 개발위주로 추진되어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왔던 우리의 정서하에서 도시경관을 위한 일정액의 시민 부담이나 시민 개개인의 불편을 수용토록 하는 것은 단 기간 내에 얻어내기 쉽지 않은 과제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세제혜택이나 전기료 감면은 시민들의 호응도를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서울에는 지역이나 가로를 대표할만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는 주요지점에 건축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경관조명을 설치토록 권장할 계획이다. 대형건축물이 도시민에게 주는 이미지 및 지역에서의 인지성을 고려할 때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개개건축물의 이미지 및 인지성을 높이고 야경으로서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건축주는 조명설치의 비용 부담대신 본인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인지성을 높여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조명 효과를 설득하려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3) 야간경관조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정착

야간경관조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착시키는 전략이다. 야경은 도시안에서 점적인 요소와 선적인 요소 그리고 면적인 요소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어떠한 요소를 선택하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화된 모습으로 비추어질

때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그간에 추진되어온 경관조명이 점적인 요소로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개개시설물의 관심도에 의지해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서울의 야경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초기의 시작 단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야경에 대한 기본적인 열개를 마련코자하는 것이다. 이 기본계획안은 서울의 각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각 지역별에 어울리는 야경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세부 경관조명시행방안까지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본계획에서 서울을 빛이 있어야 될 지역과 인공 조명 없이 자연조건에 순응하면서 관리되어야 할 지역(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해야할 지역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어야할 지역도 한강이나 남산 등 자연경관이 주요요소가 되는 지역과 역사 문화적 요소가 주 대상이 되는 지역, 업무 판매 등 생활적인 요소가 주 대상이 되는 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구분에 따라 야경의 빛깔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계획안이 갖추어지면 그에 맞는 장기 예산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예술장식품의 설치규정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도시에 문화예술 장식품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투자비용의 일정액을 문화예술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0년대 초반에 건축법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어오다가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이관된 것이다. 야간경관조명이 도시에 경관적 요소로 작용하여 시민에게 문화적 정서를 가져다 준다는 의미에서 경관조명 설치시는 문화예술설치의무를 같음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건축주는 문화예술장식품과 경관조명 두 가지 중 하나를 취사선택할 수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혀질뿐더러 이 두 가지의 영역이 도시경관의 요소로서 상호 경쟁하면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빛은 잘못 사용되거나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면 공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조명이 활성화 되어 있는 요코하마의 경우에는 경관조명 대상 건축물과 조명의 내용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를 가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경관조명이 활성화되면 구분별한 조명으로 인한 시각적 공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조명은 소재의 선택이나 설치각도에 따라 조명 효과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관련분야별로 경관조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관조명의 설계단계부터 기술적인 자문을 시행하고자 한다.

7. 맺는 말 - 야경은 연출이다.

야경은 연출이다. 연극이나 영화처럼 시나리오를 미리 설정하고 그에 따라 도시라는 무대 위에 주제를 가진 조명을 비추어 관객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 관객은 누구인가? 관객은 바로 시민이며 방문객이다. 연극이나 영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대의 설정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며 관객의 특성이 무궁무진 다양하다는 것이다.

도시라는 무대는 오랜 역사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결과물이며 인간 삶의 터전으로서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경관조명 연출자는 현재에 존재하는 도시라는 무대 특성에 맞추어 경관조명의 주제를 구상하고 이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 관객이 되는 시민은 오랜 기간동안 자기 생활공간으로서 살아왔던 각자의 자기만의 삶의 체험을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서, 그러니만큼 이들이 도시를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다. 또 관객의 일부인 도시의 방문객들도 서울에 대한 호기심과 기

대감을 가지고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도시의 경관에 대한 감정 또한 다양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수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경관조명의 연출은 분명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으리라? 그러나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도 다종, 다양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평화나 명국처럼, 경관조명 연출에 있어서 보편성이라는 가치와 개성 있는 주제를 감동 깊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생동감이 넘치고 넉넉한 마음과 윤택함이 흐르는, 그러면서도 친밀감과 즐거움, 기쁨과 감탄이 있는 도시로 바꾸어 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이라는 도시에 경관조명을 비추므로서 아름답고 역동적인 야경을 연출하여 시민과 방문객에게 시각적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이 좋은 인상으로 기억되어, 다시 찾고 싶은 삶의 터전의 모습으로 마음속에 간직되도록 하는 것이 서울의 야경개선의 실무를 맡고 있는 필자의 소망이다.

참 고 문 헌

- [1]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조명개선에 관한 연구, 김기호, 조경진, 1998 10.
- [2] 문혁경, 서울의 야경 어떻게 연출되는 것이 좋은가?, 조명과 인테리어, 1998 9

◇ 著 者 紹 介 ◇



진 희 선(陳熹善)
 1963년 2월 17일생. 1988년 2월 연세대 건축공학과 졸업. 1994년~1996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도시계획석사. 1998년 12월 서울시 건축지도과 도시경관담당사무관.